

온투법 통과 P2P업체 236곳 중 28곳 뿐… 줄폐업 우려

온투법 등록요건 갖춘 21개기업 추가
“채권추심업체 사전 계약, 의무아냐”
미등록 업체 차주 만기 시 대환대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계에서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27일 온투법 등록요건을 갖춘 21개 기업을 추가로 온투업자에 등록했다. P2P업체로 모우다, 투게더앱스 등이 새롭게 합류함으로써 총 28곳의 정식 온투업체가 탄생했다.

금융당국은 28개 이외의 신청업체에 대해선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등록업체는 신규 영업이 중단되고, 기존 투자자 자금회

수·상환 등 이용자보호 업무만 지속할 수 있다.

문제는 폐업이 뚜렷해진 업체다. 전년 동기 236곳에 달하던 업체가 28곳으로 급감하면서 줄폐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등록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업체가 폐업할 경우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온투법 27조에서는 등록업체가 영업중단 시 법무법인에 잔존업무를 위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등록업체는 영업중단 시 잔존업무를 처리할 법인이 전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채권추심업체와의 계약은 등록

업체와 미등록 업체 모두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으로 적용될 뿐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온투법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연계대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해 추심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이 모두 이탈하는 등 자체적으로 추심 여력을 잃게된 상황에서 계약한 추심업체마저 없다면 실질적인 추심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등록 업체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온투업자가 채권추심업체와 사전에 계약하는 것은 행정지도로 권고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P2P업체의 차주

를 위한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미등록 업체의 차주 중 기존 채권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등록 업체를 통해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설립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서 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방안 등이 예시로 꼽혔다.

감시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해 상주시킬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온투업자 등록을 통해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보호장치 강화로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향후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소완 기자 think@metroseoul.co.kr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현황〉

모우다	다온핀테크
투게더앱스	더줌자산관리
핀다	비플러스
헬로리딩플러스	오아시스펀딩
어니스트펀드	펀딩119
핀테크	레드로켓
루트에너지	미라클핀테크
비드펀딩	렌딧
비에프펀드	8파센트
누리펀딩	피플펀드컴퍼니
베네핏소셜	윙크스톤파트너스
위펀딩	와이펀드
에이치엔씨핀테크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나모펀딩운용대부	한국어음중개

(2021.8.31 기준)

/금감원



김재홍 IBK기업은행 개인고객·카드사업그룹 부행장(오른쪽)과 김경만 펠어비스 최고사업책임자(왼쪽)가 비대면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IBK기업銀, 펠어비스와 상생 협약

20~30대 남성 대상 마케팅 추진

IBK기업은행이 게임기업 ‘펠어비스’와 ‘개임-금융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IBK기업은행의 나라사랑 카드 금융플랫폼과 펠어비스의 게임플랫폼간의 시너지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IBK나라사랑카드와 펠어비스의 주요 마케팅 타겟은 20~30대 남성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공동마케팅을 추진해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협약식을 기념해 IB

K나라사랑카드 신규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해 말까지 IBK나라사랑카드를 신규가입하고 광고문자수신에 동의할 경우 ‘검은사막(PC, 모바일) 아이템 쿠폰’을 지급한다.

IBK나라사랑카드는 지난 2007년 이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 IBK기업은행 여업점 또는 모바일 전용 브랜치 ‘IBK큐브’에서 가입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오는 10월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장병 응원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제휴 업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지방은행, 자금조달 어려움 겪는 中企 지원

5개 지방은행, 약 3조 규모 자금 마련 신규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우대 제공

지방은행이 추석을 맞아 일시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

1일 은행권에 따르면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은행 등 5개 지방은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제공한다. 각 은행별로 신규 대출 및 만기연장을 마련했으며, 금리우대로 이자부담까지 경감해준다.

BNK금융그룹이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오는 10월19일까지 각 은행별로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연기 4000억원)씩 지원에 나선다.

지역 내 창업기업, 장기거래 중소기

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기술력 우수 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중소기업, ESG우수 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별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포인트의 금리감면도 추가로 제공한다.

BNK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 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DGB대구은행도 오는 30일까지 5000억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대출을 시행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정책을 통해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조력은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GB대구은행의 특별자금대출은 업

체당 최대 10억원 한도 이내로 제공한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방식 1년, 분할상환방식은 거치기간 없이 최대 5년 이내로 신용상태 및 담보 유무 등에 따라 최대 1.5%포인트 이상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평가 및 전결권 완화 등 대출취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JB금융그룹 광주은행도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 특별자금으로 5000억원(신규 3000억원, 기한연기 2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오는 10월15일까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30억원 이내로, 최대 0.7%포인트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전북은행도 이번 주 중으로 계획을 확정하고서 자금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은행은 지난 설날에는 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영식 기자 ysl@

우리은행

‘마음 전하고 상품 받으세요’

우리은행이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한가위, 풍성한 마음을 전하세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WON뱅킹에서 이제 후 메시지카드를 전송하고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2만원권(100명), CU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3000원권(300명)을 제공한다. 또 우리WON뱅킹에서는 추석 한정판 메시지카드 2종도 함께 출시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일 “마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식 기자

하나은행, ‘내자산연구소’ 서비스 확대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

하나은행이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내자산연구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하나원큐의 ‘내자산연구소’는 매월 ‘하나자금관리 리포트’ 발행을 통해 ▲입출금 거래 분석 ▲나의 출금성향 ▲출금 TOP5 등 개인화된 정보 제공으로 손쉽고 편리한 디지털 자금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내 펀드·주식 수익률 확인 ▲대출 관리 ▲카드결제금액 확인 ▲보험 및 연금 챙기기 ▲부동산 시세 보기 등

자산관리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제공한다.

하나 자금관리 리포트는 은행 내부 빅데이터 전문 조직을 활용해 고객의 하나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뱅킹 및 소비성향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한다.

하나은행은 ‘내자산연구소’ 확대 시행에 따라 서비스에 가입해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등록한 손님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KB국민은행, 연금상품 고객 이벤트 ‘풍성’

‘알찬 연금, 콕! 집어 KB’

KB국민은행은 오는 11월 말까지 연금상품 신규 가입 및 유지고객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알찬 연금, 콕! 집어 KB’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개인형IRP 및 연금저축펀드를 KB국민은행이 선정한 상품으로 신규가입하거나 보유상품을 변경한 고객 중 각각 2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타 기관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KB국민은행으로 계좌 이전한 고객 전원에게는 BH C치킨 모바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DC 및 기업형IRP를 KB

국민은행이 선정한 상품으로 신규가입하는 고객 중 3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또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 중 총 82명을 추첨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집콕 생활에 도움을 주는 ▲세라젬 안마기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3 ▲에코체 음식물처리기 ▲삼성전자 큐브 냉장고 ▲인바디 체성분 체중계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세액공제 상품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최근 연금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담은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영식 기자

/이영식 기자